

익숙하다는 것

홍운희 / 중앙일보 논설위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문명의 이기라는 각종 발명품들도 나타나기가 무섭게 어느새 자취를 감춘다. 마치 인간과 서로 길들이기 시험을 벌이는 듯 하다. 그러나 아무리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도 효용의 법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지펴 밥을 짓던 시절에 태어나서 수십년을 연탄불에 의지하여 가족의 끼니를 차려오던 외할머니는 여든을 두어해 남겨놓고 맞이한 가스렌지에 속수무책이셨다. 입식부엌이 아무리 편리한 것이라고 해도, 가스렌지의 불 조절이 얼마나 간편한 것인가를 입이 닳도록 설명해도 외할머니에게는 그저 '애물단지'에 지나지 않았다. 연탄보일러에서 기름보일러로 바뀔 때까지 외할머니는 다른 사람 몰래 보일러실에 내려가 김을 굽거나 밥을 지으며 행복해 하셨다.

외할머니보다 30년이나 늦게 태어난 어머니에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10여년간 써오던 전자밥솥이 수명을 다해 새 것으로 바꾼 뒤 어머니는 계속 실수를 연발했다. 타이머의 오전과 오후를 바꾸어놓기도 하고, 타이머를 정정하다가 아예 시계마저 엉뚱하게 돌려놓기 일쑤였다. 새롭게 첨가된 기능이랄 것도 따로 없을만큼 그게 그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일흔이 넘어 맞이한 새 전자밥솥은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낯설기만 한 존재였다.

20세기와 함께 태어나 한글조차 깨우칠 기회를 얻지 못한 외할머니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매사가 딱 부러

질만큼 확실하고 사리판단이 정확해 지금도 주위에서들 충고를 구하러 오곤 하는 어머니마저 고작 전자밥솥, 그것도 기능도 엇비슷한 것에 K.O 당하는 것은 나에게겐 적잖은 충격이었다. 고급 화장품을 사드렸는데도 화장대 위에 몇 달동안 멀쩡히 놓여 있기만 하더라는 등, 새 세탁기를 들여놓았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헌 세탁기가 더 좋다는 말만 계속한다는 등 주위의 불평을 듣고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실수를 이해하게 됐다. 그들 역시 화장품 사용순서를 몰라서, 새 세탁기 사용법을 자꾸 잊어버려서 '구관이 명관' 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나이'였다.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익숙하다는 것은 더 이상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이 뒷받침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편안함을 버리고 낯선 것과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두려움일 뿐더러 실제 적응 또한 더더 좌절감도 크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손쉽게 '편리함'을 추구한다. 바쁘고 복잡한 현대생활이 효용성에 가치를 두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나에게 편리한 것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편리한 것은 아니다. 전기청소기보다 빗자루가, 스팀 다리미보다 물뿌리개가 더 편리한 것일 수 있다.

행여 '효도'라는 이름으로 구식생활의 편안함을 버릴 것을 강요한 적은 없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이달의 테마**